

현대산업개발

동서울우편집중국 공사현장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최동주)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계 건설업계의 추세에 맞춘 물론, 그 변화의 중심에서고자 보다 친환경적이며 인간중심의 건축문화에 공헌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비전 2016>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현대산업개발은 신성장 전략인 <비전 2016>을 통해, 지난 10년간 유지해왔던 내실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추구함을 핵심전략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자력발전 진출, 플랜트사업 확장 및 해외사업 재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년 매출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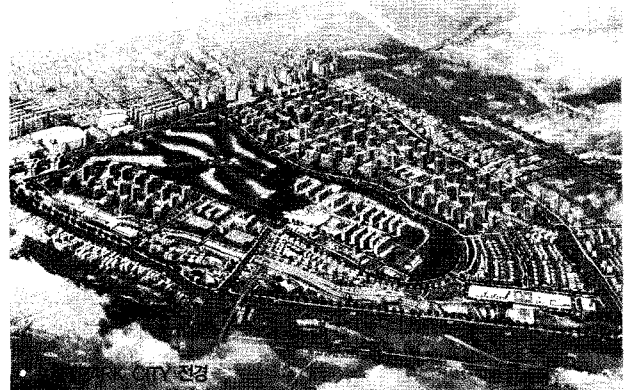
일찍이 현대산업개발은 7천여 기구 규모의 압구정 현대아파트단지를 비롯해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명작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삼성동 I'PARK 등을 통해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왔으며, 특히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수원 I'PARK CITY는 국내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청약경쟁률로 관심의 중심에 서있다.

「수원 I'PARK CITY」는 민간개발사업 중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행부터 시공까지 단일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100만㎡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도시전체를 초기단계부터 기획, 설계, 시공, 분양까지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창조함으로써 보다 유기적이고 통일성 있는 도시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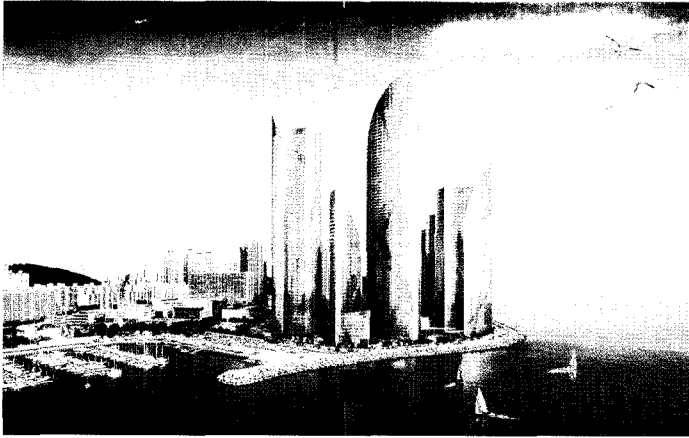
그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독보적 경쟁력을 쌓아온 현대산업개발은 향후 「수원 I'PARK CITY」와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전략도 갖고 있다.



• 동서울우편집중국 조감도



• I'PARK 전경



• 해운대 IPARK 전경



• 동서울우편집중국공사의 완벽시공을 이루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를 배경으로선 김상근 소장과 배재홍 김리단장 등 관계자들.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7~80년대에 7천여 가구 규모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바 있으며, 부산에서 지상 72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 상업시설 등의 생활편의시설, 최고급 호텔 등 레저시설까지 어우러지는 고품격 대규모 해양레저복합단지인 해운대 IPARK를 진행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수원 권선지구에서 7천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더불어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100만㎡ 규모의 수원 IPARK CITY의 개발을 진행하는 등 도시개발 분야에서 차별화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최근 현대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의 에너지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등 그린 하우스 개발

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우선 금년 중 에너지 50% 절감형 주택 개발을 위해 고효율 단열재, 고단열 외기 능동형 창호 등이 개발 중이며 세대 에너지 관리시스템,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기술도 연구·개발 중에 있다.

201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을 개발한다는 목표아래 에너지 30% 절감 기술개발을 마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공급한 「수원 IPARK CITY」에서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과 더불어 민간건설사 일반분양 아파트 중 최초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현대산업개발의 건설공사 중 안전, 환경, 시공품질 등이 모범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현장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동서울우편집중국건설현장(현장소장 김상근, 건설안전기술사)이다.

이 현장은 건설분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인간존엄에 의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정밀한 공정관리와 더불어

안전 활동을 모범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현장이다.

매일 06시 50분이면 현장소장을 비롯한 전 근로자들이 아침조회장으로 일사불란하게 집결해 체조와 TBM실시 및 매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위험성평가회의’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사전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근로자에게 철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기적인 각종 교육실시와 현장내 안전시설의 완벽한 설치 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완벽시공은 물론, 안전관리측면에서도 대표적인 모범현장이다.

또한, 이현장은 현장환경관리 측면에서도 매주 정기적으



•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 내 우편물 분류 시설이 설치될 곳을 점검하고 있는 김상근 소장과 배재홍 감리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로 환경관리의 날을 정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행동으로 이행함으로써 청결한 현장을 유지함에 의해 현장 안전사고방지 및 현장 시공품질향상에도 크게 기여 되고 있다.

동서울우편집중국현장의 특별한 점으로 꼽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책임감리단이 2개 분야로 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건설분야 감리단(itm코퍼레이션 단장 배재홍, 품질기술사/시공기술사) 및 물류자동화분야 감리단(역산엔지니어링 단장 김상훈)의 2개 분야가 운영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임직원 및 협력업체들의 완벽한 시공아래, 모든 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이행하고 실천하며 술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현장개설이래 현재까지 무사고와 양질의 시공품질을 스스로 확보해 가고 있다.

동서울우편집중국(국장 박하영)현장은 우정사업조합사무소(소장 서춘택)와 인접해 있어 수시로 현장 점검 및 공사감독(건축과장 정치국, 주감독 김인근)이 이루어져 안

전·환경·품질·공정 등 전반적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가장 우수하며 철저하게 현장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모범 현장이다.

특히,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현장 중에서도 동서울우편집중국현장은 안전관리와 시공관리 및 공정관리를 가장 잘 진행하고 있는 현장으로서 계획대비 실행을 가장 잘 추진하고 있는 현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전 임직원이 오늘도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정신, 불굴의 의지와 추진력으로 축적된 40년의 전통을 기반으로 21C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가치 지향적 경영과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사고로 무한 가치를 창조하는 Global Leading Developer로서의 역량을 다하고자 하는 현대산업개발, 그 변화의 끝은 어디인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